코리아안전뉴스
KOREA SAFETY NEWS

광주북구체육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격려와 응원'

오명하 기자 | 승인 2025.10.20 19:16 | 댓글 0



사진 = 광주북구체육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격려와 응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 부산에서 25년 만에 개최되고, 지난 17일부터 7일간 아시아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내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는 지난 16일~17일 2일간 정희환회장, 김웅정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 광주 선수단 전체의 사기 진작과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뜨거운 응원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국체전 축구 경기장을 찾아 금호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격려했다. 금호고는 부산 개성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팀워크와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상대를 2대 0으로 완파하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다. 북구체육회는 선수들의 쾌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북구체육회는 펄드하키 경기장으로 이동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이매고등학교의 치열한 경기를 관전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는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투지를 북돋았다.

광주광역시는 육상 등 총 50개 종목 1,439명의 대표선수단이 참가 하여 땀 흘리며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금29, 은32, 동38로 20일 현재 10위의 성적을 이루고 있다.

정희환 북구체육회장(리치씨앤에스 대표이사)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이제까지 땀 흘려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선수 개개인의 꿈을 이루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응원한다."며 "선수들이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운동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명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

출처: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http://www.koreasafet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234